



종이배 하나 접어 세월호 영상의 바다에 띄워보세요

미디어아티스트 이성웅·신창우
5~1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서
종이배, 우리들의 이야기
시민 제작 종이배 4일까지 접수

어릴 적 종이배에 관한 추억은 누구나 한두개씩 있다. 소원을 가득 실은 종이배를 개울에 흘려보내며 꼭 바다까지 가기를 바라곤 했다.

두 작가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Media 338'에서 '종이배, 우리들의 이야기'를 연다. 'Media 338'이 기획한 '아카이브 릴레이 전시' 첫 번째 공모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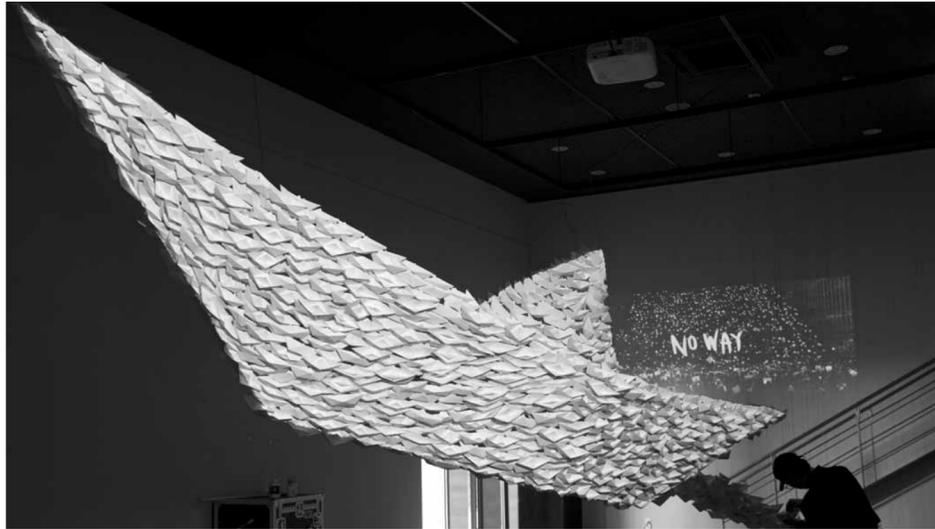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 담양 담빛예술창고 등에서 세월호 추모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는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일 방문한 전시장에서는 작은 종이배 1만여개로 만든 길이 5m·세로 1.5m 크기 배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는 철사로 공중에 매달아놔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작품설치를 맡은 이 작가는 "이번 작업은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원래는 돌이켜 종이배 1만개를 접을 생각이었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전시 취지에 공감한 분들이 종이배 수천개를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역 초·중학교, 대학생,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플랫폼' 방문객들, 동료작가, 태권도 도장, 문화재단 직원들 등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A4용지로 접은 종이배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내용을 비롯해 가



세월호 3주기 추모전 '종이배, 우리들의 이야기'가 5일부터 16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Media 338'에서 열린다. 사진은 전시 출품작인 길이 5m 대형 종이배 조형물.



신창우(왼쪽)·이성웅 미디어아트 작가

속 건강, 친구에게 보내는 인사, 학원 홍보까지 다양한 문구들이 적혀있다. 전시장 환경에 놓인 박스 안에도 아직 설치하지 못한 종이배 수백개가 보였다.

신 작가는 미디어파사드를 준비하고 있다. 하얀 종이배에 알록달록한 레이저 수 십개를 투사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길게 늘어뜨린 종이배 꼬리는

바다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 대형모니터와 맞닿아 있다.

신 작가는 "레이저 빛 하나 하나는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며 "꿈을 실은 종이배가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관련 영상을 상영하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각적·청각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배는 아직 미완성이다. 전시 개막 전날인 4일 오후 6시까지 시민들이 만든 종이배를 가능한 많이 받아 완성할 계획이다. 의미 있는 문구나 예쁜 글씨를 적어넣으면 눈에 띄는 곳에 추가할 생각이다.

전시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종이배를 접을 수 있다. 후시라도 접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작가들이 직접 알려주거나 전시장 벽면과 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종이배 아이디어는 풍선을 활용한 대형 소녀상 등 사회적 이슈를 작품에 담았던 이 작가가 처음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 3

주기를 맞아 신 작가에게 생각을 이야기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협업했다.

이 작가는 "이전부터 전시를 열고 싶었지만 '그러다 찍힌다'는 주위 만류에 주저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작가로서 부끄럽지만 이제부터는 멋있게 작업하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신 작가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에는 30대였고 지금은 40대가 됐다"며 "그동안 아이도 태어나 부모의 심정으로 이번 작업에 더욱 집중했다"고 밝혔다.

5일 오후 4시 개막식에서는 관람객들과 작품 제작과정,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기회가 된다면 종이배 작품을 다른 곳에서 전시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세월호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이성웅·신창우) 문의 062-670-74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강춘기 시집 '만인의총 앞에서' 펴내

일상에서 역사까지 70여 편
15일 출판기념회



라고 외치는 소리"('만인의총(萬人義塚)앞에서 중')

표제시 '만인의총 앞에서'는 강 시인의 시작 지향을 엿볼 수

난해하고 실험적인 시들이 넘쳐나 있는 강춘기 시인(86)이 펴낸 '만인의총 앞에서'(전우)는 감성과 리듬이라는 서정시의 본령을 구현한 시집이다. 모두 7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된 시집에는 다양한 소재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소소한 일상과 풍경에서부터 심오한 주제인 역사에 이르기까지 시인의 관심사가 투영된 시에는 진솔한 체험과 서정적 감성이 투영돼 있다.

그러나 시인은 "시인들은 언어를 가지고 시라는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언어로 집을 짓는 것이 갈수록 어렵기만 하다"고 자세를 낮춘다. 그럼에도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보화를 만나기 위해 꽃이 피어나듯 오늘도 웃으며 인생 나그네길 걸어가려 한다"며 시와 삶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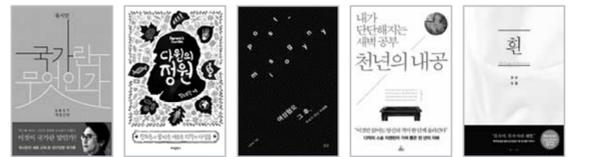
"미풍에 흔들리는 무덤 위의 풀도 울부짖고/ 너희들은 감당 못했던 조상들의 백골을 딛고라도 일어나/ 삶이라는 시간 속에 뇌수까지 울리는 크나큰 함성으로/ 아픔 없이 이룩된 역사는 없느니/ 그날의 억울함을 깨부수고/ 겁날 것도 없는 죽음 앞에서/ 비겁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

있는 작품이다. 사적 제272호인 '만인의총(남원시)은 정유재란으로 남원성이 함락되던 날, 끝까지 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민·관·군·민의 합장유적이다. 화자는 서사적 상상력과 서정적 감성을 토대로 역사적 소재를 현재라는 시간 속으로 불러낸다.

발문을 쓴 손광은 시인(전남대 명예교수)은 "강춘기 시인의 시 속에는 경이로운 삶의 체험 내용이 새롭게 상기 돋듯 감성 따라 깊게 펼쳐져서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내면의 가치로 눈뜨게 하였다"고 의미를 평했다.

장흥 출신 강 시인은 '문예시대'로 등단했으며 서은문학상, 광주시인대상(학술부문)을 수상했다. 서경정보대학 학장과 한국자연식물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시집 '겨울이 나에게 말을 하였네', 수필집 '잃은 것과 얻은 것'을 펴냈다.

한편 '만인의총 앞에서' 출판기념회가 15일(오후 4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4층)에서 서은문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2017 한책' 후보도서 5권 선정

전남대(총장 정병석)가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펼치는 한 책 읽기 운동 '광주·전남이 읽고 톡 하다가(이하 광주·전남 특)' 2017년 사업을 시작했다.

전남대는 3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 올 한 해 함께 읽을 '2017 한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책' 후보 도서는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다윈의 정원(장대익)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이현재) ▲천년의 내공 :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조운제) ▲원(한강) 등 5권이다.

전남대는 앞서 지난달 28일 교수, 신문·방송사 언론인, 종건관리자 사서, 시민단체 및 독서단체 회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한책 선정위원회' 회

의를 열고 후보도서 5권을 선정했다.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남대 '광주·전남 특'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남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21개 기관을 방문해 직접 투표할 수 있다. 전남대는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17 한책'을 중심으로 '작가 초청 한책 톡 콘서트(5월)' '한책 문학기행(6월)' 등을 열어 책을 읽고, 지역민 누구나 참여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 말까지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독서클럽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 특 홈페이지(gtalk.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니스트 박미성 귀국 독주회

내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박미성(사진)씨가 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연다.

박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드뷔시의 '판화'(Estampes) 중 '탑', '그라나다의 황

혼', '비 오는 정원'으로 무대를 연다. 이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 7번 D장조 op.10 no.3',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op.118'을 연주한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박씨는 프랑

스 Cergy-Pontoise 국립음악원 전문 연주자 과정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으로 마쳤다. 이후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Romainville 국립음악원 등에서 솔리스트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2016년 귀국한 박씨는 현재 피아노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전남대에 출강하고 있다. 전석 1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10-9771-18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24시간 OPEN!!

참숯가마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별곡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